



# 군종주보

2017년 10월 22일(제846호)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예수님의 유언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두 아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머리가 좋았으나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둘째 아들은 힘이 세고 재주는 좋았으나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이 사람 구실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세상을 뜨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첫째에게 줄 것은 서가에 꽂힌 책 속에 있다. 둘째에게 줄 것은 밭에 묻어두었다. 열심히 찾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말을 마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겨 주신 유산을 찾기 위해 서가에 있는 책들을 살살이 뒤졌으나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매우 실망하였지만, 이것저것 뒤져보는 사이에 눈에 띈 책의 내용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큰아들은 마음을 다잡아 공부하였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도 밭에 나가 보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밭을 갈아엎었으나 금싸라기 한 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은 이미 갈아놓은 밭에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고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기쁨 속에서 아버지가 남겨 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기쁜 소식, 당신이 몸소 전해주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들었던 두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각자에게 맞게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아들과 같이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새겨들은 그 말씀을 작은 아들과 같이 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유산을 찾으라 분부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정말 절로 힘이 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승남(스테파노) 신부  
필승(육군 30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2,1-5  
**회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시** 로마 10,9-1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진리를 살다

# 영성체 예식

축성(祝聖)하고 봉헌한 음식인 거룩한 주님의 몸을 받아먹는 식사를 영성체라 합니다. 미사가 잔치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잔치의 특성은 함께 먹고 마시는 데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음식으로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곳도 바로 영성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 우리가 받아먹는 성체를 가지고서는 도대체 식사 잔치의 성격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 넣으면 금방 녹아 버리는 무슨 종잇조각 같은 작은 제병 모양은 도통 빵이란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50년도 넘는 옛날, 첫 영성체 준비 교리를 배울 때 수녀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맴돕니다.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음식을 건네 주실 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체는 음식이 아닌가요? 사제가 영하는 큰 제병의 성체는 씹어 드시는데 작은 성체는 삼켜야 하는지요? 경직된 교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구체화 되는 잘못된 전형입니다. 일선 사목자들은 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두꺼운 제병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분당 예산 문제와 연결되는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이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 식사의 양식을 따른 식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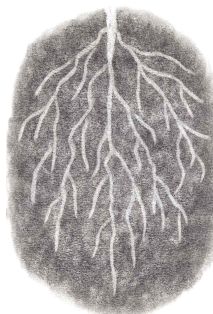
영성체 안에서 성찬례 거행과 실제적인 성찬례 참여가 완성됩니다. 영성체는 잔치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자, 두 번째 정점이며 원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몸과 피를 건네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미사는 그 기원과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성대하고 거룩한 식사 예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체와 성혈로 변하는 “변화 신심” 또는 경배 신심에만 머물러 있고 그로써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례의 목적과 의미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와 이치고 또한 같은 빵을 나누어 먹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루는 일치에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참조)

이 예식의 라틴어 명칭(‘꼬무니오, communio’)은 원래 ‘상호 염려’, ‘공동 소유’, ‘함께 나눔’ 등을 뜻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거나 함께 참여함을 뜻했습니다. 후에 이 단어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 56)는 성경 말씀에 따라 거룩한 잔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친교로써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식에 관해서는 초세기까지만 해도 별도의 영성체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부터, 정확히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그리스도교 박해 종식령으로 인하여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합당하게 영성체 준비를 하지 않거나 중죄를 짓고서도 함부로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여기에다 부당한 영성체를 경고하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이 부각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1코린 11,27-28 참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합당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 예식이 하나 둘씩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을 합당하게 받아 모시려면 먼저 각자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및 형제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차츰 영성체 전후의 예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까지 혹은 더 드물게 성체를 모시는데 만족함으로써 교회사 안에서 성찬례의 올바른 관점이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형성된 현행 영성체 예식은 영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기 위한 준비 예식(주님의 기도), 본래의 영성체(동반 행렬, 영성체 노래), 그리고 받아 모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감사 예식(영성체 후 기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체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하고 그에 맞갖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시 발췌』

##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뿌리

몇 대를 이어  
여기까지  
왔을까.

천년, 만년  
그렇게  
이어 왔  
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상화이야기

우르술리 성함



마치 고딕 성당의 입구처럼 보이는 성함의 다른 쪽 끝에는 우르술라가 자신을 죽인 도구였던 활을 들고, 자신의 망토 아래 동정 시종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다른 쪽 면의 그림처럼, 이 그림도 마치 이 성함 내부가 성당 내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도록 배경은 성당 입구로 그려져 있다.

이는 성모님의 자비심에 의탁하여, 나와 가족, 도시와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이 잘 표현된 자비의 성모님 도상을 차용한 것이다.

한스 맥링(1430-1494)  
1489년 작, 본합틀 87 X 33 X 91 cm  
상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해병중앙 박종석 신부

◆ 교구장 등장

- 필승(30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22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10월 24일(화) 11:00, 삼위일체 성당
- 가톨릭 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때·곳: 10월 27일(금)-28일(토), 대구

◆ 교구장 심의시제 방문

- 전진(1사단), 백마(9사단) 성당  
    때: 10월 25일(수)
- 맹호(수기사), 불무리(26사단) 성당  
    때: 10월 26일(목)

◆ 구상진 신부 진역 감사 미사

때: 10월 24일(화) 16:00  
    곳: 삼위일체 성당

◆ 주교회의 '평도회 장학금'  
2018년도 지원 대상지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2017년 10월 18일(수) - 12월 18일(월)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cagl@cbck.or.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